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육아 경험 의미

이영진¹⁾ 김미래²⁾ 이은형³⁾ 김정숙⁴⁾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은 긍정적 기대감이 가득한 임신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실천하는 육아를 위해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은 사회관계 속 중심 리더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에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육아 동영상 클럽 제작 지원 및 공유를 통한 실질적 지식 공유,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육아 경험

I. 서론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어머니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기쁨을 주지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이원영·김정미, 2007). 임신에서부터 태교, 출산과 양육에 있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매 상황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TV 드라마 속 대사인 ‘나도 아빠는 처음이야’, ‘나

- 1) 중앙대학교 박사
- 2) 우송정보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 3) 한국복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부교수
- 4)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도 엄마는 처음이야 라는 문구처럼 처음 부부가 되고 처음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육아의 시행착오를 겪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결하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대학에서 유아음악교육, 유아언어교육 등 각 교과영역별 과목과 영유아 발달, 부모교육,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등의 교과목을 수강한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유아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서부터 교수자의 역할수행을 위한 교과별 교과교육학지식, 교육학 관련 기초전공지식들을 습득하며, 부모교육자로서 부모교육 등의 수업을 듣는다. 이는 곧 유아교사로서 교수자, 양육자, 보호자, 부모교육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가 되며, 대학 졸업 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업하여 유아교사직을 수행하며 유아교육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된다. 유아교사는 영·유아의 발달특성 상 단순히 가르치는 일만이 아닌 손 씻기, 식사, 용변, 낮잠 등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양육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성향을 지닌 영·유아들을 접하면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실제적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이 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과 교류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들이 인식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민, 특성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 경력이 쌓일수록 교수자, 양육자, 보호자, 부모교육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유아교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많은 유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얻은 실제적 지식들은 이후 자녀를 낳아 기르며 육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선, 2012). 따라서 부모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와 관련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부모들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 실질적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자로서 좋은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김진선(2012)의 연구에서 자녀를 가진 유아교사의 경험을 보면 다른 교사들에 비해 보호와 교육이라는 통합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임에 따라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있었고, 교사일 때와 엄마일 때 달라지는 역할기대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부모를 겪어본 경험으로 인해 자녀의 원에 까다로운 엄마로 비춰지길 꺼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교사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교사의 경험으로 인해 육아와 관련된 인적자원 활용, 다양한 매체 활용 등 교육 자원으로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과 엄마로서 육아와 교사로서의 교육의 순환을 통한 전문성 신장의 장점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영, 2012). 이처럼 자녀를 가진 유아교육 전공자의 육아는 일반 어머니의 육아 특성과는 다른 형태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19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과제목표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4대 복합·혁신과제 주요내용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 책임시스템 구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확대, 부모의 육아행복감, 아동의 웰빙과 행복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있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더불어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계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등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연구(김순란·김용미, 2019; 현정환, 2007), 육아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경험을 탐색하며 의미를 알아보거나(강혜경, 2013; 유지안·이혜정·김은심, 2016; 조운진, 2017),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김혜경, 2014; 이정주·이종연, 2014; 이재택, 2016) 등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시중에는 전문가들이 저술한 발달에 따른 자녀양육서가 많이 출판되어 있고, 온라인에서도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다.

안정된 육아를 위한 부모지원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아이를 키우며 아동학대를 일삼고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한다. PC방에서 출산 뒤 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리고(뉴스 A, 2020.2.6.), 육아스트레스, 우울증으로 7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서울경제신문, 2019.2.28.), 3살 딸을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을 시도한 30대 주부(경향신문, 2020.2.24.) 등 임신출산에서부터 영·유아기 자녀 양육시기에 이르기까지 육아의 어려움에 따른 부정적, 극단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또, 김은영, 박원순, 이재희와 이혜민(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보고된 학대 의심사례는 51,071건이며 그 중 영·유아의 사례 수는 17,866건으로 영유아 집단의 학대 행위자와 영·유아와의 관계는 부모인 경우가 78.6%로 전체의 1/3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육아를 전담하게 되는 대상을 어머니의 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사상으로 임신 기간의 태교를 태아의 일생을 좌우하는 최상의 전인교육으로 보았으며 조선시대 쓰인 태교신기에서도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학 측면에서도 육아(育兒)는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낳아 기르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로 좀 더 넓게 정의하고 있다(Daum 한국민족대백과사전 2020.2.28. 인출). 또한 김은설과 최혜선(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응답자의 9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부모가 주중(5일 동안)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는 5.4시간, 아버지는 2.9시간이었으며, 일상 생활에서 자녀를 챙기거나, 학습지도, 등하교를 돕는 시간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문무경·조숙인·김정민, 2016).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어머니의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도 육아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육전공자의 경우에도 여성과 남성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육아의 주체를 유아교사 중 여성인 유아교육전공자 어머니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고 한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여성도 결혼을 하여 자신의 아이를 만나게 되는 때를 맞이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교육하는 것과 자신의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일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같은 경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유아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유아교사의 경험의 의미(김수연, 2014), 보육교사 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병행하는 경험의 의미(백정원·최정숙, 2014), 경력단절 후 다시 일하는 여성교사들의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백연진·이소현·오은순, 2016)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취업모의 경험을 살펴보거나, 경력단절 후 재취업 측면에서 교사로서 어려움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 김진선(2012)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한 2명의 어머니와 연구자 본인에 대한 양육 경험을 토대로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 양육법, 자기반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수가 소수이며, 유아기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시기부터 낙태, 영아살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의 육아 경험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사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영유아시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나타나는 육아 경험을 탐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영·유아 및 학부모를 접하며 육아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의 육아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만 2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어머니이다. 연구자는 대학원 재학 중에 주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만의 고유한 양육 특성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의 육아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수강생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찾아보았다. 더불어 2년 이상의 유치원 경력을 지닌 유아교육 전공자를 연구 참여자로 하고자 하였다. 유아교육 분야는 현장의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경험적 학문 영역이다. 이에 2년 이상의 유치원 교사경력을 통해 육아 경험에 대해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남다른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합당한 연구참여자들을 찾고자 의도성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연구자 주변에서 대상자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가 3명밖에 되지 않아 추가 연구참여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의 주변인을 소개받은 후, 연구자가 우선 상으로 본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추가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7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30대이며, 교육수준은 대졸 3명, 대학원 졸업 4명이었다. 첫 아이를 가진 시기는 결혼 후 1년 후가 많았고, 모두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통해 전공 이론공부와 함께 유아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나이	자녀연령 ^{주1)} /성별/자녀수	교육	계획임신여부	교사 경력
연구 참여자 1	37	만 4세/남/1	대학원졸	계획임신	사립유치원 3년
연구 참여자 2	38	만 4세/여/2	대학원졸	계획임신	사립유치원 3년
연구 참여자 3	33	만 4세/여/1	대학원졸	계획임신	사립유치원 2년
연구 참여자 4	36	만 2세/남/1	대학원졸	계획임신	사립유치원 6년
연구 참여자 5	34	만 3세/여/1	대학졸	자연임신	사립유치원 3년
연구 참여자 6	38	만 5세/남/2	대학졸	계획임신	사립유치원 3년
연구 참여자 7	37	만 5세/여/2	대학졸	자연임신	사립유치원 2년

주1) 자녀연령 및 성별은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제시함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집, 인근 공원, 놀이터, 키즈 카페 등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2-3회에 걸쳐 약 30분-1시간 정도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육아 경험’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은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어머니로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 중점을 두고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배려를 위해 면접 실시 전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은 기록될 것임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참여자와 동일하게 유아교사 경력이 있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면담 중에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공감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였다. 면담과정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면담 참여자들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자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어려워하는 경우 간단한 부가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쉽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이후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적 코딩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어머니와 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수행되었다. 전사한 자료는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내용을 읽으며 유사내용을 범주화하였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연구자들 간 다르게 코딩되는 응답들은 연구자 간 합의하고 협의 후 재코딩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되었고, 개방코딩(open coding)의 단계에서는 전사된 내용을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개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의미가 유사한 내용은 개념을 서로 묶어서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축코딩(axial coding)의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부여된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유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여 범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축코딩의 범주를 통합시켰고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개방코딩에서 즐거움, 아이에 대한 기대감, 부부가 함께, 적극적 참여, 평범한 태교, 일상 속 태교, 태아의 인격부여, 태교부터 공부 등의 내용이 분석되었으며, 축코딩에서 임신의 즐거움, 긍정적 부모 이미지, 태아를 존중하는 태교,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 등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이후 선택코딩에서 즐거운 임신 속에서 긍정적 부모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토대로 태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자아상 형성 등으로 핵심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자 간 의견을 나누었다. 이 세 가지의 코딩방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확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관련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분석에 임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고려하여 진실과 동형성을 보여주는 질문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적용성'을 고려하여 면담의 전사 자료와 분석 내용을 연구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와 공유하였다. '일관성'을 고려하여 박사이상의 연구자 2명과 자료를 공유하였고, 판단중지를 통해 '중립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서술하고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점검(member checking)을 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긍정적 기대감 가득한 임신기: 임신·출산 육아멘토의 가능성

부모로서 긍정적인 자아상 만들기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평상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임신 기간 동안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며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신혼기를 가지려했던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더욱 긍정적으로 느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저는 유아교육을 학부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임신 전에는 그런 기대가 컸어요.

(2019. 4. 10.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1)

많은 아이들을 봤잖아요. 엄마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방식들을 은연중에 배웠어요.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나름의 엄마의 철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기대가 엄청 컸어요.

(2019. 4. 25.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7)

태아, 아빠와 함께하는 태교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태중의 아이 및 남편과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아에게 인격성을 부여하며 태아들이 부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남편이 태교에 참여하는 것은 아내가 편안한 임신기간을 보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태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 태교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까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학교를 다녀도 즐겁게 다녔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이가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2019. 4. 25.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7)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태아성장보고서나 관련 영상을 남편과 같이 공유하며 같이 많이 보았어요. 예비부모교육도 같이 듣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도 하면서 행복할 거란 상상을 했어요.

(2019. 4. 23.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4)

태아한테 아빠 소리를 많이 들려 줘야 하고 아빠가 책을 읽어 주는 게 아이한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남편도 아빠 목소리가 태아에게 좋다는 걸 알더라고요. 밤마다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2019. 4. 10.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1)

출산이 두려웠지만 아이가 어떤 상황일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아기를 낳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제왕절개로 낳겠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아이가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해하더라고요.

(2019. 4. 25.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7)

이처럼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가 임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를 그리는 경험은 임신과 출산에 고민이 많은 현대 여성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더불어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는 태교가 유아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임신과 출산에 두려움을 느끼는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임신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세대 간 갈등, 부부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실천하는 육아: 놀이중심 교육자, 바른 양육 실천가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육아 실천

유아교육자 어머니들은 유아교사로 재직하면서 부모들의 양육법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아 원칙에 대한 확고함을 나타냈다. 또, 육아원칙을 남편과 공유하며 육아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욕심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을 발현시켜 주자’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까 ‘규율’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더하게 되네요. 그래도 저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없어요.

(2019. 5. 11.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7)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보니 다른 엄마들보다는 육아에 있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네요. 주변에서 ‘아직 한글도 안 시키냐’, ‘너무 애를 놀리기만 하는 거 아니냐’ 채근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하게 아이를 푸쉬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많이 뛰어놀고 건강하게 즐거우면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아이가 원할 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싶어요.

(2019. 5. 23.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2)

아이를 키울 때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남편도 제가 유아교육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의 육아 스타일에 맞춰줘요. 아빠와 엄마의 방식이 다르면 아이 양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대할지를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도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양육해서 아이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9. 5. 18.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3)

발달에 따른 경험을 중시하는 육아 실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서 놀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간혹, '한글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라는 질문에 유아교육에서 놀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다양한 놀이경험은 앞으로 익혀갈 학문의 기본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실천하였다.

정해진 방법대로 노는 장난감보다는 몸으로 놀아주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 자료들을 활용해서 많이 놀이하는 편이라 집에 놀잇감, 장난감이 많지는 않아요. 아이들의 발달에 맞게 휴지 속대나 페트병 같은 폐품을 사용해서 생각해서 만들고 놀고 할 수 있는 놀잇감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줘요.

(2019. 6. 3.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2)

앉아서 숫자나 한글을 억지로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수나 한글은 아이들이 태어나 제대로 공부 느낌으로 배우는 첫 공부인데 재미없게 배우면 앞으로 배우는 일을 싫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19. 6. 8.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3)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한 만족감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이미 알고 있는 보편적 발달 수준을 통해 자녀 발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발달하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유아교육자로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나 유아의 발달 상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하고 예측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빠르거나 느려도 아이의 개인적 성장차이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너무 특별하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보게 되고 이 아이를 더 뒤달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19. 6. 9.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4)

유아교육을 공부해서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시키지 않고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해서 더 즐겁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지치지 않고 놀이 중심으로 아동 중심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는 배운 게 많이 컸었던 것 같고...

(2019. 5. 31.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6)

유치원 교사경력이 있는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육아를 하며 가치관, 만족감 등이 형성되었으며, 교육방식에서도 놀이중심 특성을 보였다. 이는 유아기 교육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유아의 놀이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로써 이들의 역할이 강조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기 놀이중심 교육, 올바른 양육법에 대해 전문적 강연을 할 수 있는 부모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관계 속 중심리더로서 유아교육 전공자의 노력: 사회 속 지식 공유자

신중한 조언자의 역할을 위한 성찰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비슷한 포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에 관련된 질문을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유치원교사를 하며 간접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양육에 대한 선구안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변 엄마들에게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만, 민감한 주제인 만큼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다 ‘육아’라는 고민을 공유하며 유아교육자로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도 제가 유치원 교사를 했다는 이유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하세요. 돌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야 되는 책이 뭐가 있냐. 지금 시작해야 되는 교육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유치원 교사 시절에 보았던 예시를 말해줘요. 객관적인 사례니까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2019. 6. 9.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5)

아이들이 3살이 되면서 고집이 생기니까 주변 엄마들의 질문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조심스럽게 ‘아이가 어떤데?’ 하고 아이의 상태나 상황을 듣기는 했어요. 친한 엄마인데, 아이에 대해 속단해서 말하기 어려웠고요. 교사를 하며 부모 상담할 때랑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속에 자연스럽게 알아채길 바라는 거죠.

(2019. 6. 8.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3)

다른 엄마들이 훈육을 할 때 소리 지르는 것 보고 놀랄 때 있어요. “야!! 그거 만지지 말랬지!!” 애들이 커가면서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보면 소리만 안지를 뿐이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고 있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도 유아교육 전공했는데,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직접적으로 조언하기는 힘드니까...

(2019. 6. 24.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7)

‘이상적 육아’ 실현을 위한 적절한 타협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이상적인 육아원칙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원칙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유아교육 교과서에 나올 법 한 육아 원칙을 자녀양육에 적용했지만 현실과 부딪혀 적절한 타협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이에 맞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아교육자 어머니로서 고민의 흔적을 알 수 있었다.

아직은 아이라 그럴기는 하지만 조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인데 내가 그런 부분에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다른 아이한테 무조건적인 배려와 그런 걸 강요했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가 돼요.

(2019. 6. 8.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6)

놀이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친구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고 같이 위하고 배려해주면 좋은데, 안 그런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미끄럼틀에서도 거꾸로 올라가는데 제지도 안하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을 보며 제가 우리 아이에게 강조하는 규칙이라던가 타인 배려 등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손해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피하게 돼요. 상대방모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괜히 오해하고 일만 커질 것 같고요.

(2019. 6. 3.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1)

제가 너무 생각이 많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생각 해 둔 기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제가 우리 아이가 이렇다고 ‘우리 아이는 이런 기질을 가진, 성향을 가진 아이인 것 같아’라고 먼저 좀 많이 단정을 지었다.. 그런 오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2019. 6. 10.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7)

유아교육 전공자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연구 참여자의 가족들은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양육 방법을 존중해 주었고, 어머니

들도 전공 분야에 관해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 아는 분야에 대한 높은 효능감에서부터 나타나는 자신감 있는 양육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유아교육을 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요.” 혹은 “엄마가 유아교육을 해서 놀아주는 게 다르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유아교육을 배웠다고 인정해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 6. 24.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3)

네가 유아교육을 했으니 잘 키운다.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 친정이나 시댁 식구나 터치를 안 해요. 애들이 그만큼 잘 따라주니까. 애들이 벗어나거나 그랬으면 말을 하겠지요.

(2019. 6. 29.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1)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로서 역할과 책무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유아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부모를 만난 경험과 자녀를 키운 경험 그리고 이웃 어머니들과 교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유아교육자 어머니로 역할과 책무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공부한 분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기도 하였다.

주변에서 저의 육아방식에 대해 많이 얘기해요. 항상 좋은 얘기를 듣는 건 아니지만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회에서 부모교육을 한다면 저의 생각에 동의할 것 같아요. 부모교육을 좀 깊게 진지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강연식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부모교육 전문요원이 동네마다 있어야 해요. 정말 이게 기본이라....

(2019. 6. 25.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5)

모든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그 때 그 문제를 나누기보다 예민하지 않게 건강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어머니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각자의 자녀와 자신을 돌아보고 지역의 교육 여건을 위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2019. 6. 24.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 3)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로서 육아에 대해 고민한 경험은 타인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생성하는 데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이 육아 고민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가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동안 나타나는 육아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만 2세에서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총 3개월 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육아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는 긍정적 기대감이 가득 찬 임신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며 임신을 맞이하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전공자 어머니들은 비전공자와 다르게 어머니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있다(김진선, 2012). 따라서 대학에서의 전공 관련 학습은 ‘어머니 되기’를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는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만큼 임신 기간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도 아버지와 함께 태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전공 경험이 임신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태교라는 것이 특별한 무엇을 새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태교를 실천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의 여성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오히려 너무 다양한 상태의 선택사항으로 올바른 선택이 어렵다(류수민·이하정, 2015). 그러나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신준비 및 태교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전공이 어머니로서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전공자들에게도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김정미·강정원·박선영, 2011; 노희연·조재순·채정현, 2017; 장영숙·조현진, 2009)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되어오고 있으나, 정은미(2017)의 연구에서 ‘부모 됨’의 준비는 반복적인 교육으로 내재화되고 체득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예비부모교육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육아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공 지식과 교사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육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아이 중심 육아와 아이를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육아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을 쌓았기에 육아에 있어 주관 가지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놀이 중심 육아를 실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전공자 어머니들이 놀이를 통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김진선(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과거에는 놀이를 비교육적으로 생각하는 경향(Simmons & Brewer, 1985)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많이 언급되면서 부모들도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과거보다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어머니들이 놀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박영애·김리진, 2011). 다만 이러한 인식에도 영어 학원 유치부 등 학습 중심의 사설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부모들이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자신만의 교육철학으로 자녀에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에게 만족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유아들의 발달을 이해하는데서 오는 양육 효능감일 것이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유아기에 과열된 사교육 양상이 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사회관계 속 중심 리더(core leader)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가족, 이웃, 사회 속에서 유아교육적 재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환원하고자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어머니들과 양육정보를 교류함에 있어 좀 더 긍정적인 양육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공자이기 때문에 주관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상황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공자들은 양육 상황에서 종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는 이론과 실천적 지식이 바탕으로 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김진선, 2012).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엄마와 아이의 기질 등 고려할 점이 많기에 이를 조절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 과정에서도 본인만의 주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움을 겪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바른 정립관이 우선 세워져야 효과적이다(박선미, 2014). 대부분의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오랜 시간 경험하고 습득한 이론과 실재를 통해 자신만의 바른 양육관을 정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관이 맞지 않는 어머니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공자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자신의 경험이나 양육관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워하였다. 어머니들과의 관계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양육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녀양육이 한 가정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조언을 주고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고 추

측된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전공자 어머니와 비전공자 어머니가 함께 하는 소모임 교류의 시간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공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교사 경력은 자녀양육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전공자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전공자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 마련의 필요성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의 산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첫째, 정부 및 지자체는 육아지원서비스 측면에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가 자신의 전공경험 및 양육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교과영역별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며, 유아들을 교육해본 경력자들은 이론과 함께 실제적 지식을 겸비하게 된다.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아에 있어 비전공자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접근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경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 지식들도 육아의 질에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과 교류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들이 인식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민, 특성들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맞춤형 부모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모들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부모교육을 위한 좋은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이운진, 이정림과 임준범(2017) 연구에서 동일한 표준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강사의 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부모교육이나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생애주기별 부모(가족) 교육,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연수 등에서 이론과 실제에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원 하는 것은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비전공자들이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형성하고 양육 역량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부모들의 양육경험과 모델링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부모의 요구와 자녀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전문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보면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은 주변의 교육열에도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육아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학문의 이론들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양육방식임을 알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학습공동체처럼 성공적인 육아를 주제로 동아리나 소모임 등을 구성하여 리더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예비부모 및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접근성이 요구되므로 지역사회에서 주민 센터를 매개로 하여 지역 내 부모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 선행학습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부모의 육아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는 임신 기간 중 태교에서부터 특별한 무엇이 아닌 부모와 뱃속의 자녀가 교감하며 모두 즐거울 수 있는 태교, 아버지와 같은 주변사람들에게 임신기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특성을 보였다. 예비 부모들에게 임신기는 매우 힘든 시기임이 분명하지만, 부모와 태아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첫 단계의 특별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예비부모들이 힘들지만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적인 관점과 육아선배의 경험을 함께 녹여 임신 자체의 즐거움을 재치 있게 풀어내고, 임신이 어려운 부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엄마들에게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 주도록 소통의 채널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조금은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나 지자체가 주가 되어 임신 및 출산 스트레스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멘티들을 모집하고, 이를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과 멘토로 연계하여 개인이나 집단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실제 육아 경험담을 토대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양육 기술, 지식, 태도를 쉽게 풀어서 동영상 클립 제작 등을 공모하여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방송사 TV프로그램에는 부모의 자녀 양육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양육방식의 적합한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잘못된 방법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관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이 자문을 하고 있다. 권미경, 이정원, 최효미와 김혜진(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자신있다'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 외(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이유 중 하나도 양육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보고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선상에서 부모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가르쳐주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이 영·유아시기 학습이 아닌 놀이의 중요성, 아이의 흥미 고려,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 등이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육아콘텐츠들이 많이 있다. 영·유아기 부모는 실질적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길숙·김지현·이혜민, 2016). 따라서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와 차별화하여 예비부모단계의 임신에서부터 출산에서부터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이 육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육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예: 상호작용 방법 등)들을 제시하는 시리즈 형태의 소책자나 5분 내외의 온라인 콘텐츠를 클럽형태로 구성하여 수요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것을 구성한다. 그리고 개발된 콘텐츠들은 교육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책자 형태로 제공하거나 아이사랑 보육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등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접근이 쉬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라인상에서 태블릿 PC나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이 겪는 육아 고민에 대해 맞춤형 계속 교육을 위한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들의 경우 비전공자 어머니들과 양육방식에서 차이가 있거나 본인 스스로 교육자와 어머니라는 역할 사이에서 겪는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시절 유아교육 전공에 대해 공부를 하며 부모의 역할, 영·유아기 발달적 특성,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에 대해 이론적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교사로서 경험을 거쳐, 자녀 양육에 어머니로서 임하는 것은 그들이 만나는 가족과 이웃의 집단의 일반인들과는 다른 관점과 양육 방식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유아교육 전공자가 교육과정 속 부모교육을 학습하였지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정현정, 2018).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자녀 양육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대학 및 육아 관련 기관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공자 어머니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어머니들의 요구를 통해 필요한 양

육 관련 지원 제도를 도출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들이 긍정적으로 집단 속에서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통해 이론과 경험에 근거한 양육방식이 다르지 않음을 재인식하고, 주변 또래 어머니와 가족 안에서 양육방식의 다름에 따른 고민이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관계형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부모교육과는 다른 측면에서 주변의 또래 어머니들을 올바른 양육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매개차원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경(2013).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실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0(2), 133-167.
- 경향신문(2020.2.24.). '육아스트레스'에 생후 7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41122001&code=940202#csidx030129d8c1f368b8616e1f3d92356c4.에서 2020.2.28 인출.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6-39.
- 김길숙·김지현·이혜민(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8.
- 김수연(2014). 자녀 양육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유아교사의 변화와 갈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란·김용미(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동향한국보육학회지, 7(1), 127-140.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 교육 환경 조성 방안II: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미·강정원·박선영(201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3(2), 1-19.
- 김진선(2012). 유아교육·보육전공자의 자녀양육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유아교육학연구, 12(2), 121-145.
- 김혜경(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연구의 동향 분석. 18(3), 331-366.

- 노희연·조재순·채정현(2017).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교과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9(4), 161-193.
- 뉴스 A(2020.2.6.).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PC방에서 출산 뒤 유기.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7815에서 2020.2.28. 인출.
- 류수민·이하정(2015). 생태적 교육배경을 지닌 부모의 부모 되기 경험의 의미: 잉태준비기, 임신, 출산, 양육과정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51-77.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 박선미(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학부모연구, 1(1), 63-87.
- 박영애·김리진(2011). 유아기 및 아동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 관련 인식 기초조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2), 37-56.
- 백연진·이소현·오은순(2016).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보육교사의 일과 자녀 양육 병행 경험 탐색. 포괄영유아, 아동교육지원연구, 4(1), 1-21.
- 백정원·최정숙(2014). 유자녀 보육교사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167-198.
- 서울경제신문(2019.2.28.) 육아 스트레스 고부갈등 우울증에 3살 딸 살해·자살 시도 30대 주부 집행유예 3년.
https://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2&bidx=1964805&page=1&pageblock=1에서 2020.2.28 인출.
- 유지안·이혜정·김은심(2016). 군인아내의 양육 경험 이야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239-264.
- 이원영·김정미(2007). 대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서울: 북카페.
-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실태 및 내실화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09.
- 이재택(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308-318.
- 이정주·이종연(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2), 943-967.
- 장영숙·조현진(2009).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만족도 평가. 열린 부모교육연구, 1(1), 63-82.
- 정은미(201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14(1), 5-19.
- 정현정(201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대학원 생의 학업, 양육 병행 경험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유아교육 전공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운진(2017).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공동양육 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3(2), 57-115.

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2018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9-17.

최혜영(2012). 보육교사의 육아 경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Daum 한국민족대백과사전(2020). <http://encykorea.aks.ac.kr/>에서 2020.2.20. 인출.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1st ed.)*, Newbury Park, CA: Sage.

Simmons, B. & Brewer, J. (1985). When parents of kindergarteners ask “why”. *Childhood Education*, January/February, 177-184.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논문접수 4월 7일 / 수정본 접수 5월 22일 / 게재 승인 6월 15일
- 교신저자: 김정숙,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a3356913@bc.ac.kr

Abstract

Child Care Experiences of Mot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Lee, Young Jin, Kim, Mi Rae, Lee, Eun Hyung
and Kim, Jung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ho have child-rearing experience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childcare support policy based on them.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mothers who were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raising their childre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pend their pregnancy years full of positive expectations. Second, they were found to be striving to provide good child care, as they learned and practiced. Third, they made efforts as central leaders in social re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policies such as providing mot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ith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sharing practical knowledge through the production and sharing of video clips on childcare, and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for those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word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mothers, child care experience